

다나시로 습원

다나시로 습원은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1,158m) 북쪽 기슭에 있는 외딴 습원이다. 수천 년 전, 산의 일부가 붕괴해 평평한 초원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빗물이 고이며 습원이 형성되었다.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 큰방울새란, 크랜베리, 황새풀, 물파초 등 시라카미 산지의 다른 지역에서는 드물거나 존재하지 않는 많은 식물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 다나시로는 초여름에 습지의 대부분을 뒤덮는 아름다운 노란 큰원추리로 가장 유명하다. 안타깝게도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타 환경 요인이 습원을 건조하게 만들어 큰원추리는 현재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습원의 경계가 건조해지자 주변 숲속의 나무들이 침범하기 시작했다. 사스래나무, 일본 고산 벚나무, 마가목은 습지 환경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가장 먼저 습원에 퍼진다. 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면 땅이 충분히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땅에 너도밤나무, 소나무, 삼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건조한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보통은 습원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나무가 다나시로 일대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습원에는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나무길이 설치되어 있어 신발에 묻은 외래종의 종자가 습원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